

2010.09.06 미래정책연구실

□ USDA, 세계적 수준의 산림연구센터 개관 (USDA (2010.08.27) 주요 내용)

- 지난 27일 USDA Forest Service 산하 산림연구센터가 새로 개관함. 새로운 산림연구센터는 기후변화, 대기질, 삼림생태계 적응과정 및 수자원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핵심적인 연구를 담당하며, 전체 예산 530만 달러 중 29%를 경기부양법안(Recovery Act)에서 지원함.
- Vilsack 장관은 연구센터 개관식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 도입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수자원 및 산림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새로운 연구센터가 농촌 활성화(Rural Revitalization)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탄소 저감·수자원·야생동물 서식지·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정량화함으로써 생태계 시장(Ecosystem Market)의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생태계 시장이란,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자연자원을 시장가치화함으로써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대표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종다양성 은행(Biodiversity Bank) 등의 예를 들 수 있음.

(시사점)

- 세계적 수준의 산림자원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수자원 및 산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전세계적 화두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생태계 시장(Ecosystem Market)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짐.
- 향후, 우리나라 농업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계 시장 선도 노력 필요

□ 일본, 농가곡물보조금 인상 계획 (Agra-net (2010.08.31)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발효되는 곡물생산보조금 인상안을 제출함. 이번 인상안은 자국 내 곡물 생산 증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일본 정부는 생산 비용과 판매가격 간 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1,000㎡ 당 15,000엔(약 140유로)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이번 회계년도부터 쌀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함. 새로운 인상안을 통해 중산간지역 및 환경보전지역의 농가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됨.
- 일본은 식량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국가로 꼽힘.

(시사점)

- 세계적으로 곡물위기로 인한 영향이 심각한 가운데,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은 곡물 생산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자국의 식량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우리나라의 곡물(밀, 옥수수, 콩 등)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